교육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배포 2026. 11. 17.(화) 08:00 | 보도시점 (인터넷)2026. 11. 17.(화) 12:00 (지 면)2026. 11. 18.(수) 조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현장 중심의 혁신 성과 확산 기대

- '2026.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5편) 발표 및 시상
-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 등 우수한 대학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추진한 결과, 5개 대학*(대상 1편, 우수 4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 대전보건대학교, [우수상] 국립창원대학교, [우수상] 건국대학교, [우수상] 한양대학교, [우수상] 경북대학교 <붙임 2 참고>

교육부는 2024년부터 법령개정과 규제특례 등을 기반으로, 현장 실정에 맞는 혁신 모델을 구축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3회 공모전에서는 25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서면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모두의 광장 누리집(www.modu.go.kr)'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5편을 선정하였다.

대상을 받은 대전보건대학교는 선행학습인정제(RPL)에 기반한 학점인정 확대와 교육운영 내실화*로 전문기술석사 취득 기간을 기존 8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경로('고숙련 마이스터 패스트트랙')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체 재직자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현장 인력 수급의 적시성을 높였다.

* 학생선발기준, 이수학점, 성적기준, 졸업요건 등 심사체계 정비

국립창원대학교는 2년제 도립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교)와의 통합을 기반으로 전문학사부터 학사, 석·박사까지 이어지는 개방형 다층학사 성장체계를 구축해 학생 중심의 유연한 교육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통합 캠퍼스의 특성화 분야와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교육·연구·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맞춤형 인재양성 모델을 개발하였다.

건국대학교는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을 계기로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입학 단계에 한정하지 않고, 대학 재학 기간 전반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소단위 전공 과정의 학점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이 자신의 목표에 맞게 전공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공자율선택제 확대와 연계한 종합적인 학사 개편을 추진하였다.

한양대학교는 학과 간의 경계 없이 충분한 전공탐색을 거쳐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다학제적 전공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졸업 시점이라도 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면 주전공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졸업전공선택제 이수체계를 마련하였다.

경북대학교는 대학 간 협약과 학칙 등을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베트남에 '프랜차이즈형' 해외 교육과정 수출 모델('KNU Vietnam')을 개설하고 현지 수요가 높은 경영학과와 컴퓨터학과를 운영 중이다. 이는 유학생 유치에서 벗어나 우수한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에 직접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해외 교육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11월 18일(수) 공모전 시상식에 이어, 참석 대학들과 대학 규제 혁신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수상한 학교들을 격려하고, 규제 혁신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현장의 규제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대학이 혁신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시상식 개요
2.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주요내용(5건)

담당 부서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책임자	과장	조훈희 (044-203-6830)
		담당자	사무관	조현미 (044-203-69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시상식 계획**

□ 행사개요

ㅇ **(행사명)**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시상식

ㅇ **(일시/장소)** '26.11.18.(수) 14:00~15:00 / 정부세종청사 14-2동 520호 회의실

ㅇ **(참석자)**

- **(교육부)** 장관님, 고등평생정책실장, 대학정책과장 등
- **(대 학)**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대학 수상자*

* 대전보건대, 국립창원대, 건국대, 한양대, 경북대 5개 수상 대학의 사업 추진부서

ㅇ **(시상규모)** 교육부장관상 및 상금

□ 세부 일정(안)

시간		세부내용(안)		비고
14:00~14:02	2′	▪ 개회		공개
14:02~14:10	8′	▪ 장관님 인사말씀		
14:10~14:20	10′	시상식	▪ 규제혁신 우수대학 장관상 수여 (상장 + 꽃다발 + 기념명판)	
			▪ 기념사진 촬영 ※ 장관님, 수상대학 처장, 관계자 등	
14:20~14:50	30′	간담회	▪ 대학 우수사례 간담회 ※ ❶ [전문기술석사] : 대전보건대 ❷ [통합대학 규제특례] : 국립창원대 ❸ [학사] : 건국대, 한양대, 경북대	비공개
14:50~15:00	10′	▪ 폐회		

붙임 2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주요내용**

1 대전보건대학교

사례명	전문기술석사 패스트트랙 기반 보건의료 고숙련 인재양성
개선규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개정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의 2분의 1이내 단축 가능(2025.6.2. 개정)
배경	‣ AI,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등 첨단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유연하고 고도화된 실무형 R&BD 능력을 갖춘 임상현장 및 교육 전문가 수요 증가 ‣ 전문기술석사과정 법정수업연한의 경직성으로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이라도 조기 졸업이 불가하여, 특히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는 재직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주요내용	‣ 고교 단계부터 석사과정까지 단절 없이 연결하고 전체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고숙련 마이스터 패스트트랙' 제도 정비 - [**1단계**] 꿈이음 과정으로 인구감소지역 특성화고 학생을 보건계열 학과로 연결하고, [**2단계**] 패스트트랙으로 학칙부터 졸업인증까지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3단계**] 석사과정 단축과 선행학점인정을 연계하여 1년 석사과정 완비

1단계 특성화고-전문학사 연계	>	2단계 전문학사-전공심화-석사 연계	>	3단계 석사과정 단축
•인구감소지역 특성화고 학생 대상 온·오프라인 병행 고교학점제 꿈이음 교육과정 개설 •이수자를 위한 정원 내 꿈이음 입시전형 신설로 보건계열 학과 진학 경로 제공(지역인재할당제)		•전공심화과정(학사)에 석사 교과목 선이수 운영으로 진학시 학점 인정 •대학원 운영규정 개정으로 학생선발기준, 이수학점, 성적기준, 졸업요건, 심사 절차를 구체화		•선행학습인정제(RPL)를 통해 석사 이수학점의 최대 1/2까지 학점 인정 확대 •졸업인증위원회에서 학업성취도·전공역량·산업체 수행성과 ·졸업요건 종합심사하여 질 관리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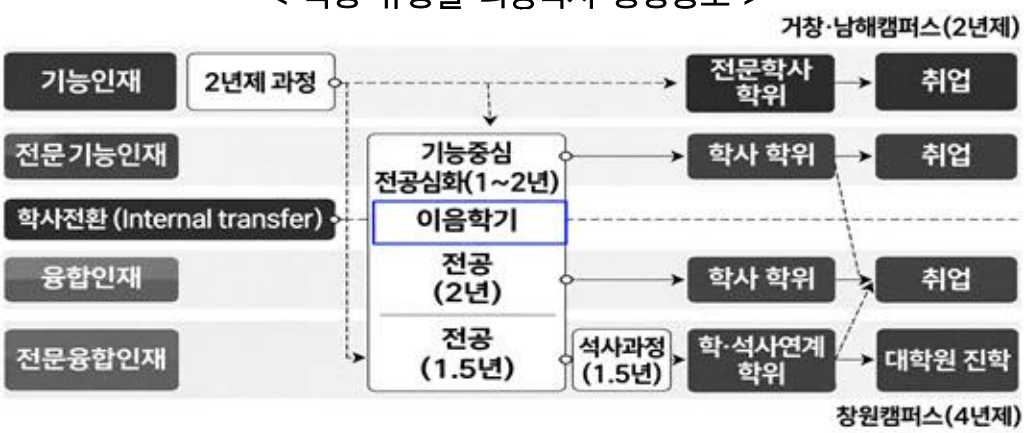
‣ 전문기술석사과정 2년 기준으로 최대 단축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어, 선행학습인정제(RPL)와 조기졸업 제도를 적용하여 총 1년 과정의 전문석사 설계

< 고숙련 마이스터 패스트트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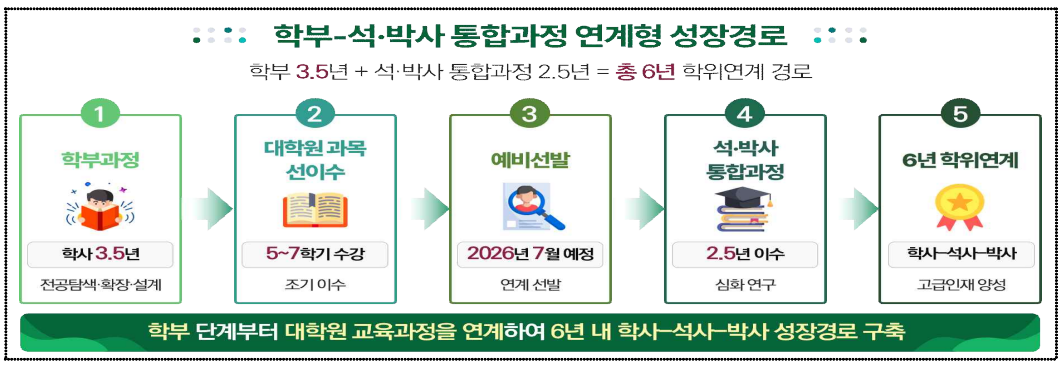
기대효과	‣ 성인학습자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조기 현장 복귀 효과 도모 - 산업체 재직자의 석사학위 취득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여 학비와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 보건의료 고숙련 인재 양성 및 산업현장 수요 대응 기대

2 국립창원대학교

사례명	국·공립 3개 대학 통합 기반 다층학사제로 지역혁신형 학생 성장모델 구축
개선규제	‣ 통합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요(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 지정 : 2025.4.21.,교육부고시 제2025-167호)
배경	‣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국·공립대학 통합을 통한 학생 중심 성장경로 혁신과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체계 마련 필요 ‣ 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특례를 통합대학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하여, 통합대학 체제 혁신과 4개 캠퍼스별(창원, 거창, 남해, 사천) 특성화 기반 지역혁신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모델 구축
주요내용	‣ (**학생 맞춤형 다층학사 성장체계**) 국·공립 3개 대학 통합을 기반으로 규제혁신형 'CWNU DNA+* Academic Transfer Model'을 구축하고, - 전문학사–학사–석·박사로 이어지는 다층학사 성장경로와 내부 편입·융합전공·MD/ND 기반 모듈형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학생 중심의 100% 개방형 교육생태계 구현함으로써 학생 선택권과 성장기회 확대 * DNA+: Defense(방산), Nuclear(원전), Autonomous(스마트제조) < 학생 유형별 다층학사 성장경로 >  ※ 이음학기 : 학사전환 학생을 위한 전공기초 보강, 계열별 교양 등 단기 집중 운영 ‣ (**다층학사 성장경로의 지역 확산**) 다층학사 성장경로를 4개 캠퍼스 특성화와 연계하여 학생 진로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 전략산업 수요를 반영한 진학–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
기대효과	‣ 전문학사-학사-석·박사로 이어지는 개방형 성장경로를 제도화하여 학생의 학업 선택권과 단계별 성장 기회 확대 ‣ 창원·사천우주항공·거창·남해 4개 캠퍼스 특성화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연구·산학협력 체계 강화 ◘ 학생에게는 전문학사-학사-석·박사로 이어지는 개방형 성장경로 제공 지역에는 수요 기반 인재양성,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3 건국대학교

<table>
<tr><td>사례명</td><td>전공선택권을 넘어 학생 맞춤형 성장경로 구축:
전공탐색-전공확장-전공설계-학위연계 학사혁신 모델</td></tr>
<tr><td>개선규제</td><td>‣ 대학 조직 운영 자율성, 전공자율선택제 시행 근거, 소단위 전공과정 운영 근거, 전과 가능 범위 확대, 학점인정 기준 자율화, 학위과정 간 연계 운영 유연화 등을 확대</td></tr>
<tr><td>주요내용</td><td>‣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이후 후속 학사혁신을 추진하여 전공탐색-전공선택-전공확장-전공설계-학위연계로 이어지는 학사제도 전반으로 확장
‣ (학생 맞춤형 성장경로) 전공탐색 교과목, 신입생 세미나, 학사지도교수 상담, 전공박람회 등 교과 및 비교과 전공탐색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전공자율선택 모집단위와 전과제도 개선을 통해 제1전공 선택권을 확대
- 심화전공·제2전공 의무화, 소단위전공 도입, 전선B 운영을 통해 전공 선택 이후의 학습경로를 전공·역량·교과목 단위로 확장
- 자기설계전공제도의 고도화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진로 목표에 맞는 전공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석·박사 통합과정 연계를 통해 학부 단계의 학습경험이 대학원 진학과 연구역량 개발로 이어지는 기반 마련


‣ (학부-석·박사 통합과정 운영) 학부단계의 전공탐색, 전공확장, 전공설계 경험이 대학원 진학과 연구역량 계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여 학사-석사-박사로 이어지는 고급인재 성장경로 구축(학부3.5년+석박사2.5년)

</td></tr>
<tr><td>기대효과</td><td>‣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학습경로를 탐색하고, 선택하고, 수정하며, 확장하고, 학위 단계까지 연계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체계를 구축</td></tr>
</table>

4 한양대학교

사례명	전공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한양인터칼리지와 졸업전공선택제
개선규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 이수 등) 전공자율선택제 근거 마련, 제29조(입학·편입학 등) 제3항 전학년 전과 허용
배경	‣ 학과 간의 경계와 이를 둘러싼 장벽이 전공선택권을 가로막아 입학 시점의 전공이 대학 4년과 진로를 규정하게 되는 구조적 경직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계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비효율 초래
주요내용	‣ (**한양인터칼리지**) 입학 전 부트캠프 운영, 혁신적 융합기초교육과정 설계, 다양한 학사제도 유연화 기반 자유로운 전공선택 지원, 다학제적 전공경험 장려를 통한 융합인재 양성  ‣ (**졸업전공선택제**) 다중전공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졸업 시점에 전공 변경을 신청하고, 이후 2개의 추가 학기 동안 변경된 주전공 및 일부 학점을 포함한 총 140학점의 졸업학점을 이수한 이후 주전공이 변경된 학위를 수여 
기대효과	‣ 2개의 전공을 모두 주전공 요건에 충족하는 학점만큼 이수하게 되어 융합역량을 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전공선택권이 주어지게 되어 중도탈락률 개선 등 효과 기대

5 경북대학교

사례명	‘KNU Vietnam’- 국립대학 최초 프랜차이즈형 교육 수출
개선규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개정으로 대학 간 협약과 학칙에 따라 해외 교육과정 운영 가능
배경	▸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대학의 위기 심화에 따라 대학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고등교육 국제화의 필요성 증대 ▸ 사전 승인제와 엄격한 세부 운영기준 적용으로 현지 수요에 맞는 유연한 학사 운영과 자율적인 국제화 추진에 제도적 한계 존재
주요내용	▸ (**국립대 최초의 ´프랜차이즈형´ 해외 교육과정 수출 모델 구현**) - 경북대학교–베트남 FPT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협약으로 하노이에서 ‘KNU Vietnam’을 공식 개시하여, 신입생 모집 및 운영 시작(’26.9월) - 교육과정개발·운영과 학위 수여 및 품질관리는 경북대가 담당하고, 교육시설·행정지원 등 현지 운영은 FPT대가 수행하는 역할 분담 체계 구축 ▸ (**우수 학부 교육과정 우선 도입 및 교육품질 관리체계 확립**)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영학부·컴퓨터학부 교육과정을 우선 운영하고, 순수 외국인(학생과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입학전형 운영 - 성적 우수자에게는 국내 본교 캠퍼스에서의 학업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질과 학업 성취도 제고 ▸ (**국제공동연구 확대 및 산학협력 고도화**) - 현지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하여 정보기술분야 공동교육과 국제 공동연구 확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등과 협력하여 산업수요 기반 실무형 인재 양성 - 현지 우수 학생의 본교 대학원 진학과 연구 참여를 확대하고, 졸업생이 현지 산업과 대학 간 협력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선순환 구조 조성
기대효과	▸ (**국립대학 최초 프랜차이즈형 고등교육 수출 모델 선도**) - 해외 유학생의 국내 유치 중심에서 벗어나, 국립대학의 우수 교육과정과 학위를 해외 현지에 직접 제공하는 교육 수출형 국제화 모델 제시 ▸ (**대학 국제 경쟁력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교육 책무성을 기반으로 베트남 현지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교육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와 대학 국제화 추진 - FPT대학교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경북대학교의 인지도와 국제적 위상 제고 기반 마련